

구례, 2회 추경 4,326억원 편성

기정예산 대비 1,001억원 증액
민선8기 새 군정방침 실현 중점
경제 활력·정주여건 개선 기대

구례군이 최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4,326억 원을 편성해 구례군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01억원이 증가했으며, 일반회계는 992억 원 증가한 4,275억 원, 특별회계는 9억 원 증가한 51억 원이다. 구례군은 재난·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2020년도 호우피해 항구복구, 코로나19 상시 대응 등 재난·재해 예방과 민선 8기 새로운 군정방침 실현에 중점을 두고 이번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먼저 재난·재해로부터 모든 군민이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재난·재해 예방과 2020년도 호우피해 항구복구, 코로나19 상시 대응 등에 341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또한 민선 8기 새로운 군정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으로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 달성을 위한 청년·노인 일자리 사업, 지역상품권 확대 발행 등에 24억 원, '머물고 싶은 힐링관광' 실현을 위한 각종 관광개발 사업과 웰니스 페스티벌, 산사 EDM 페스티벌 개최 등에 85억 원을 책정했다. '삶이 풍요로운 정주도시' 건설을 위한 상·하수도 보급 및 도로 보수·개설, 생활·문화·체육시설 확충, 신규마을 조성, 주환경 개선 등에 169억 원, '희망을 가꾸는 미래농업' 육성을 위해서는 농기계 면세유와 축산농가 조사료 지원, 꿀벌 피해농가 화생과 원예생산기반 활력 지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 등에 56억 원, '웃음꽃 피는 안심복지' 실현에 필요

한 긴급복지 지원,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제공,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양육환경 개선 등에 43억 원을 편성했다.

김순호 군수는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 "지리산과 섬진강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생태관광 활성화와 체류형 관광권역 구축으로 작은 규모의 지역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 넣겠으며, 정주여건 개선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군민들의 현재의 삶이 조금 더 풍요로워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년 농업인을 육성해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고 토양 환경 개선과 특화작목 확대 재배를 통해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9대 구례군의회 첫 회의인 제291회 임시회에서 오는 28일까지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구례=손석봉 기자



곡성 아이스크림 페스티벌 물놀이 시설에서 한 어린이가 다이빙을 하고 있다.

/곡성군 제공

곡성, '아이스크림 페스티벌' 입소문 탔네

3일간 1만5천명 방문 '성료'

곡성군이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레저문화센터에서 개최한 '곡성 아이스크림 페스티벌'이 입소문을 제대로 탔다.

곡성군은 여름 관광객 유치를 위해 올해 처음

곡성 아이스크림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곡성군은 축제 3일간 1만5,000여명의 방문객이 페스티벌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작 시간인 오전 9시가 되자마자 곡성군이 마련한 좌석 1,000석이 동났다. 또한 약 300여 팀이 돛자리와 캠핑 장비를 준비해 축제장 곳곳을 가

득 채웠다.

곡성군은 이번 페스티벌이 입소문을 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모든 물놀이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파악하고 있다. 사위실, 탈의실, 화장실 등 편의 시설도 전면 무료로 개방했다. 축제장 한편에서는 특색 있는 아이스크림과 다양한 먹거리를 맛볼 수 있었다. 특히 지역 주민들이 직접 판매 부스를 운영함으로써 지역 축제의 의미를 더했다. /곡성=한정길 기자

내일부터 '여수 세일페스타'

세계박람회 10주년 기념
주요 상가 최대 30% 할인

2012여수세계박람회 10주년을 맞아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여수시 주요 상가에서 '여수세일페스타'가 열린다.

이벤트 기간 동안 참여 상가를 방문하면 5~30%까지 세일된 가격으로 이용하거나 음료수 제공 등 특별한 서비스를 만나볼 수 있다.

여수시소상공인연합회와 외식업협회를 비롯해 여문상가, 진남상가, 흥국상가, 학동선소상가연합회 등 대다수의 상인 단체가 참여한다. 여름철 관광객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해양공원해물삼합거리와 낭만포차협회도 함께한다.

여수시는 사전 분위기 조성을 위해 상가

주변에 현수막과 포스터를 부착하고 참여상가가 확정되면 리플릿도 제작해 시민과 관광객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여수형공공배달앱인 '쌍쌍여수먹게비'에서도 박람회 10주년 기념 할인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태완 여수시 투자박람회과장은 "박람회 당시 뜨거운 분위기를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고, 10주년 행사를 다 함께 즐기기 위해 '여수세일페스타'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행사 기간 지역 상가를 많이 이용해 주시고 도시 곳곳에서 펼쳐지는 박람회 10주년 기념행사에도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2여수세계박람회 10주년 기념행사는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 여수세계박람회장과 여수시 일원에서 개최된다.

/여수=곽재영 기자

보성, 탄소중립 실천 커뮤니티 조성한다

공모 선정...국비 2억원 확보

보성군이 최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공모한 탄소중립 실천 마을 커뮤니티 조성사업에 선정돼 국비 2억 원을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탄소중립 실천 마을 커뮤니티 조성 공모사업은 지역주민이 자율적·주도적으로 참여해 탄소중립 실천거점을 조성하고 탄소중립 실천 필요성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국 기초지자체에서 1차 서류심사, 2차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16개의 마을이 선정됐다.

보성군은 '탄소중립 1번지 조성면 가온마을 만들기'라는 주제로 공모에 참여했으며, 지역

주민들이 탄소중립의 필요성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성군은 조성면 동로현 복지센터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 탄소중립 교육장 및 실천 모임 공간, 기후변화 취약계층 적응 주민 센터를 조성할 방침이다.

또한 인근 조성시장에 태양광 발전설비와 태양광 LED 가로등을 설치해 에너지 자립을 추진하고 냉·난방비와 운영비를 절감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환경보호 의식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탄소중립 실천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 /보성=백종두 기자

순천, 내일 국제그린산업 발전포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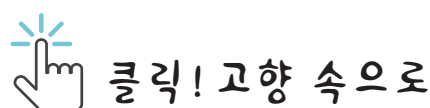
'지속가능 녹색성장 발전' 주제

순천시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에 발 맞춰 오는 22일 순천만국제습지센터 입체영상관에서 '국제그린산업 발전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지속가능한 녹색성장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해 정원문화 확산과 후방산업 연계육성 등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의 자리다. 포럼에는 ▲AIPH(국제원예생산자협회) 사무총장 팀 브리 어클리프의 '국제원예박람회를 통한 도시발

전' ▲AIPH 동남아시아 대표 카렌 탐바이영의 '그린시티 각국 사례' ▲순천대 조경학과 최정민 교수의 '순천의 정원산업 발전방안' 등 권위 있는 전문가들의 발표와 함께 미래 세대를 위한 저탄소·녹색도시 사례가 소개되며, 이에 따른 순천시가 나아갈 방향도 논의될 예정이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포럼은 도시 전체가 정원이라는 '도시 패러다임의 변혁'을 준비하는 순천시에 매우 유의미할 것'이라며 "포럼은 누구에게나 개방돼 있으므로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천=박경식 기자



여수 광림동 주민자치위, '사랑의 빵' 나눔

여수시 광림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최근 직접 만든 '사랑의 빵' 500개를 경로당 12개소에 전달했다.

위원들은 이른 아침부터 반죽, 굽기, 포장까지 직접 참여하며 무더운 날씨 속에서 구슬땀을 흘렸다.

위원회의 '사랑의 빵' 나눔 행사는 기존의 반찬 나눔 프로그램을 변경해 작년부터 연간 2차례씩 진행하

고 있다.

김임옥 주민자치위원장은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몸은 피곤하지만 반갑게 맞아 주시는 어르신들 덕분에 힘이 난다"며 "달콤한 빵을 드시면서 이야기꽃이 피어나는 것을 보니 어르신들께 기쁨을 드린 것 같아 보람이 크다"고 말했다.

/여수=곽재영 기자



보성 노동면, 취약계층 밑반찬 전달

보성군 노동면 5개 봉사단체가 최근 '사랑의 밑반찬' 봉사를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노동면 복지회관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여성자원봉사회, 새마을부녀회, 생활개선회, 여성의용소방대 등 노동면 4개 여성봉사단체와 노동면 희망드림협의체 회원, 보건지소 직원들이 참여했다.

봉사자들은 지역 농·특산물과 보 건소에서 건강 식 단표를 받아 돼지 주물럭, 가지볶음, 오이고추 된장 무침, 고등어구이를 요리해 균형 있는 영양식을 제공했다.

윤철순 생활개선회장은 "봉사단체가 하나 돼 이웃 어르신들에게 건강함을 선물할 수 있어 보람 있다"고 밝혔다. /보성=백종두 기자



순천대, 대입면접 멘토링 박람회

순천대가 최근 전남 지역 고교생을 대상으로 자기주도적 진로 역량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는 '2022학년도 순천대 대입 면접 멘토링 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2023학년도 대입설명회, 생활기록부 기반 1대1 컨설팅, 학과 체험 및 진학 상담, 동아리 및 대내·외 활동 체험 등을 통해

대입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최수임 입학처장은 "앞으로도 하반기에 개최되는 학부모 진로진학 아카데미, D.C.T 전공체험 박람회 등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을 통해 지역의 우수 인재를 발굴하고 양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주연 기자